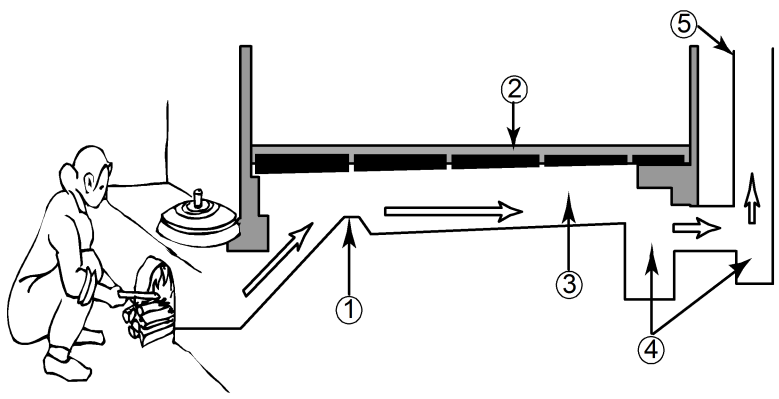
200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제 1 교시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2 | | | | |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물음) 온돌의 단면도에서 '개자리'에 해당하는 곳은? [1점]



〈온돌의 단면도〉

2. (물음) 실험의 결과를 응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식당에서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음식값을 환불해 준다.
② 항공사에서는 예약 부도율을 낮추기 위해 예약 불이행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③ 비만치료센터에서는 고객이 친구나 애인에게 감량 목표치를 직접 알리게 한다.
④ 금연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담당 의사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준다.
⑤ 상품 광고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보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비자의 관심을 끌게 한다.

3. (물음) 사회자의 진행 방식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요약·정리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의문을 제기하여 상세한 설명을 유도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⑤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고 있다.

4. (물음)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생은? [1점]
① 첫 번째 학생
② 두 번째 학생
③ 세 번째 학생
④ 네 번째 학생
⑤ 다섯 번째 학생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한자 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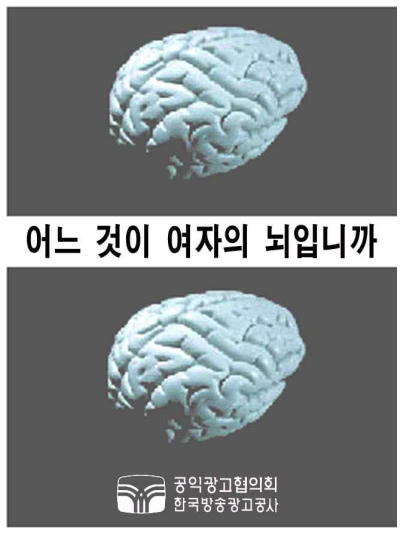
	토 론 내 용
찬 성	① 한자 지식은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 한자 문화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한다. ③ 한자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반 대	④ 중국과 교류하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⑤ 한글 전용으로도 학술적 언어 표현에 불편한 점이 없다.

6. (물음) '여 교수'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① 우리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일상에서 굳이 한자를 쓰지 않더라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③ 미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영어 열풍을 일으켰듯이 중국의 성장은 중국어 열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④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하나는 한자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자를 우리말의 일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⑤ 동북아 시장에서는 문화가 곧 상품입니다. 문화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통 문자의 활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두 광고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주제로 설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이다.
② 사람은 언제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람은 아무도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
④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⑤ 사람은 모두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8. '사이버 중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논지 전개상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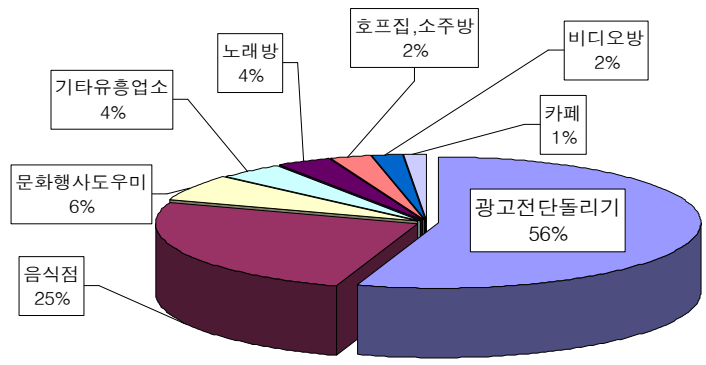
논지 전개	주 요 내 용
무엇이 문제인가?	○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범죄나 사고가 발생한다. ○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못하는 금단 현상이 발생한다.
⇓	
문제의 원인은?	○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 '권력욕'과 '소영웅 심리'를 부추긴다. ○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	
문제의 해결책은?	[A]

① 사이버 중독에 빠진 원인을 조사하여 그 유형을 분류해 본다.
②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홍보한다.
③ 사이버 중독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집중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④ 금단 현상 해소를 위해 종교 활동을 권장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권유하고,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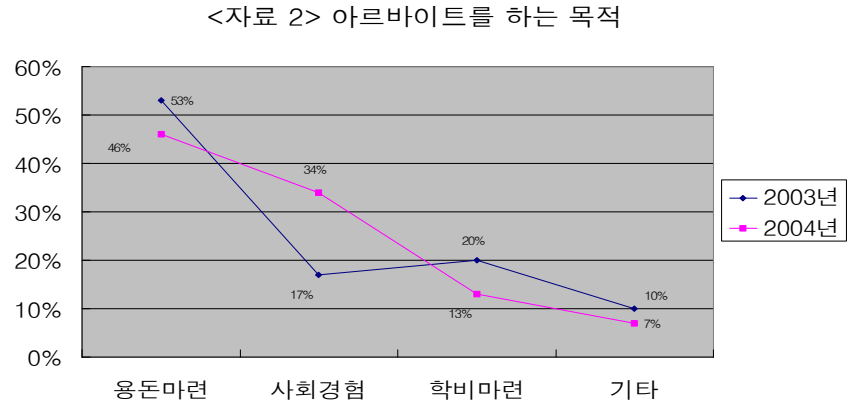
9. 개요를 작성한 뒤,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았다. 두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제 목 : 청소년 아르바이트
Ⅰ. 머리말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필요성
Ⅱ. 본 문 :
  1.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가. 소비 욕구 충족
    나. 학교 밖에서 사회 체험
  2.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 측면
      (1) 건전한 직업관 형성의 계기 마련
      (2) 아르바이트 연장선상에서 진로 탐색
    나. 부정적 측면
      (1)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풍조 조장
      (2)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보호막 미흡
  3. 보완할 점
    가.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 강화
    나.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Ⅲ. 맺음말 :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

<자료1>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자료 2>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① 'Ⅰ'은 <자료 1>, <자료 2>를 참고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로 대체한다.
② 'Ⅱ-1'에는 <자료 2>를 활용하여 '학비 마련'을 추가한다.
③ 'Ⅱ-2-가'에는 <자료 2>를 활용하여 '노력을 통해 얻는 대가의 소중함 체험'을 추가한다.
④ 'Ⅱ-2-나-(2)'는 <자료 1>을 활용하여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으로 교체한다.
⑤ 'Ⅱ-3'에는 <자료 1>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강구'를 추가한다.

10.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전자 투표 실시'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절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설문 조사 결과

◦질 문 : 인터넷 전자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결 과 : **응답 비율**

찬성(50%), 반대(46%), 무응답(4%)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 찬성 이유 : 투표 행위 용이, 참여율 증가, 예산 절감 등
- 반대 이유 : 시스템의 불안전성, 조작 가능성,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① 전자 투표 시스템에 최신 방화벽을 설치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② 장애우를 위해 투표 보조 요원을 가정으로 파견하여 투표소까지 안전하게 안내한다.
③ 전자 투표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역 단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한다.
④ 전자 투표 집계 과정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투표 감시단을 참관하게 하여 조작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⑤ 투표자의 희망에 따라 일반 투표와 전자 투표를 병행 실시한 후 효율성을 비교하여 전자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11.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제 목 :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자

한 번 흘러간 시냇물이 다시 오지 않고,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 번 보내 버린 시간을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먼저,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짧게는 하루의 계획, 길게는 일 년의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해 간다면 늘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짜투리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도대체 시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고 해도 낭비하는 시간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야 유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우리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알차게 이용할 때만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도록 하자.

① ㉠은 '그런데'로 바꿔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② ㉡은 글의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③ ㉢은 맞춤법에 맞게 '자투리'로 한다.
④ ㉣은 '아무리'로 바꿔 문장 성분의 호응을 적절하게 한다.
⑤ ㉤은 '적절이'로 바꿔 잘못 쓰인 어휘를 바로잡는다.

12. 실버 타운(노후 보장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문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보 기〉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우회적 표현을 통해 효심을 드러낸다.

① 저희는 언제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② 최고의 설비로써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바람처럼 달려가겠습니다.
△△ 실버 타운의 황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③ 고왔던 어머님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부드러운 아버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미소 그 손길로 당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④ 험한 들길 걷고 가파른 산길 넘으시면서도
너는 꽃처럼 향기롭다 이르셨던 당신께
자신 있게 권합니다, ○○ 실버 타운!
⑤ 인생의 황혼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꺼질세라 식을세라 품으시던 그 사랑
오십시오, 첨단 시설과 환상적인 서비스의 세계로!

13. 〈보기〉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를 범한 것은? [1점]

〈보 기〉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①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② 나는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③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④ 합격자 발표는 정문에서 발표한다.
⑤ 학생은 공부를 절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14.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보 기〉

○ 나는 삼촌의 (㉠)로/으로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
○ 이 법의 시행에 허점이 있어 제도적인 (㉡)이/가 필요하다.
○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영양 (㉢)이/가 필수적이다.

	㉠	㉡	㉢
①	보완(補完)	보충(補充)	보조(補助)
②	보충(補充)	보완(補完)	보조(補助)
③	보충(補充)	보조(補助)	보완(補完)
④	보조(補助)	보완(補完)	보충(補充)
⑤	보조(補助)	보충(補充)	보완(補完)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눌 하눌 허나 하눌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헌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눌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눌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앉어 소출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가꾸는 덴 단돈 일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어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둑이 떠나가니 아나? 거름 한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이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약품비료(藥品肥料)〕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홀댈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얼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異端的)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허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家業)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헐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謀利之輩)*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仁術)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윽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 말했지만 너무 문서쪽만 쥐구 서울 앉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곯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림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논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루 태났던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논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어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리구 네 모(母)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친만은 네가 서울루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헌 인물이십니다."

[A]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隔離)되는 일종의 결별(訣別)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遺言)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 중 략 〉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만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곬으로도, 가운뎃곬으로도 끝엣곬으로도 맑기만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뎃장으로 가 쾅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덕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르르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낯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눌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 이태준, 돌다리 -

*모리지배(謀利之輩) :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전장 : 개인이 소유하는 논과 밭.

1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점점 고조된다.
② 대화와 설명을 통해 인물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간결한 문장을 통해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④ 우연적인 요소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⑤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6. 〈보기〉와 같이 위 글의 작가와 대담을 하였다고 할 때, 작가가 말할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학생 : 선생님의 소설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점은 무엇인지요?

작가 : _____

① 땅의 가치, 그것은 효율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② 땅과 인간, 인간의 지혜는 땅에서 나옵니다.
③ 소중한 땅, 그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④ 땅의 소유, 농민에게는 많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⑤ 마음의 땅, 우리가 돌아갈 미래의 보금자리입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토의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잘못 이해한 학생은? [3점]

〈보 기〉

이태준에게 소설이란 치밀하게 만들어지는 세계로 정교하고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태준이 구사하고 있는 심미적 장치의 본질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세계 인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아이러니이다. 즉 어떤 인물이 상대 인물을 경외(敬畏)하고 동경(憧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괴리감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인식의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① 희수 : 창섭이가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신념과 논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② 성구 : 그렇다면 아버지가 펼치는 신념의 세계로 창섭이가 들어간다는 얘기겠네.
③ 태민 : 글쎄, 창섭이는 아버지의 세계를 단지 그것 자체로 훌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이야.
④ 호재 : 아무튼 창섭이가 아버지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⑤ 형식 :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섭이가 자신의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18.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가 남길 유언(遺言)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이 땅을 절대로 처분하지 말아라.
② 내가 죽은 뒤에 네 뜻대로 하여라.
③ 이 땅은 농사지을 사람이 가지게 하여라.
④ 네 어머니 몫이니 네 어머니 뜻에 따르거라.
⑤ 내가 남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라.

19. 위 글에서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梅花)를 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 뜻이야 앗을소냐.
②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주마.
올 길에 뽕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③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④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지 마라.
한 번의 때묻은 후면 고쳐 씻기 어려우리.
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독점 기업은 많은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독점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이윤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적당히 줄여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똑같은 조건하에 있는 시장이라도 독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상품 생산량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경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준은 완전 경쟁이 실현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독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독점 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상품 생산량을 스스로 줄이기 때문이다. 상품 생산량이 최적에 이를 때 사회 후생이 가장 커질 수 있다면, 독점 체제하의 사회 후생은 이보다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상품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 것을 독점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독점의 존재는 부(富)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독점 체제 하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독점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가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호 가문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독점 이윤의 획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과점 체제에서 나온 막대한 이윤이 재벌의 급속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부의 편중은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병폐는 독점 시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독점 기업이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낭비적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도 지

적한다.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높은 진입 장벽을 쌓아 잠재적인 경쟁자가 감히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엄청난 돈을 써 이곳저곳에 광고를 한다거나, 관료들을 구워 삶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로비 활동에 쏟아 붓는 것은 모두 진입 장벽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런 돈과 노력을 비용 절감이나 품질 개선 같은 유용한 목적에 쏟아 부었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것이다. 단순히 진입 장벽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낭비된 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독점 기업은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면, 기업은 마지막 남은 효율성까지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 덕분에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독점 체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자도 없이 마음대로 시장을 요리할 수 있는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독점 기업은 생산량의 조절로 이윤을 추구한다.
② 상품 생산량이 많을수록 사회 후생이 높아진다.
③ 독점 체제가 가져온 부의 편중은 정경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완전 경쟁 체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율적이다.
⑤ 기업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낭비적 측면이 강하다.

21. ㉠의 관점에서 〈보기〉의 '허생의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서울에서 가장 큰 부자로부터 돈 만금을 손에 쥔 허생은 집에도 가지 않고 '안성은 경기와 호남의 갈림길이고 삼남의 요충지였다.' 하면서 그 길로 안성에 거처를 정했다. 그런 후 시장의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거두어 샀다. 사는 대로 한정 없이 곳간에 저장해 두었다. 오래지 않아 나라 안의 과일은 동이 났다. 형편이 이렇게 되니 이번에는 과일 장수들이 허생에게 달려와 사들인 값의 몇 배로 사가게 되었다.

"허어, 겨우 만 냥으로 나라 살림을 기울게 할 수 있다니. 나라 경제의 규모를 알만하구나!"

허생은 이렇게 탄식했다.

과일을 다 처분한 다음 그는 칼, 호미, 무명, 명주, 솜 등을 모조리 사 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그걸 팔아 이번에는 말총이란 말총은 모조리 사들였다.

"몇 해가 못 가서 나라 안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지 못하게 될게다."

허생의 장담대로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의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말총을 내다 파니 백만금이 되었다.

① 허생은 지나친 이윤 추구를 위해 상품을 독과점하고 있군.
② 허생은 조선의 교통 체제 변혁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군.
③ 허생은 제사를 중시하던 양반 사대부를 각성시키려 하는군.
④ 허생은 국제 무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군.
⑤ 허생은 거대 자본을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군.

22.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②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례의 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⑤ 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23. 위 글의 글쓴이 A와 〈보기〉의 글쓴이 B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최근 전력·천연 가스의 배급, 지방의 전기 통신 서비스, 수도 그리고 운송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대두되고 있다. 이 계획에 우리는 전면 반대한다.

얼마 전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다. 오히려 민영화는 여러 유사한 회사의 가격 담합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예전의 독점 체제보다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공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법적인 독점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① A :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② B : 물론 그렇지만, 국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③ A : 공기업도 완전 경쟁이 없다면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④ B : 공기업을 효율성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⑤ A : 공공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기업의 이윤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지요.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즈음에는 부채를 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아직도 부채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홍보용 기념물에서나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래 부채는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는 안 될 일용품이자 필수품이었다. 부채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펼 때마다 기분과 흥을 돋구는 휴대용 미술품이었고 무더위에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청량제였다. 계절과 더불어 노닐면서 부채를 통하여 자연의 바람을 즐겼던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채란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이상을 나타내 주는 상징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부채는 조선조에 와서 대유행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에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 즐겨 사용해 왔다. 이러한 부채 그림을 선화(扇畵)라고 한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현존하는 각종 선화의 소재들은 매우 다양해서 산수(山水)·화조(花鳥)·인물(人物)·풍속(風俗)·사군자(四君子) 등 동양화의 모든 소재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글씨의 경우에도 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전서(篆書)·예서(隸書)의 5체가 두루 쓰이고 있다. 현존하는 선화들은 시대적으로 오랜 고화일수록 더욱 더 정성을 들인 면면을 볼 수 있다. 특히 겸재나 단원의 선화는 단순한 선화라기보다 완전한 한 폭의 그림으로서 당당한 면모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선화를 대하는 작가나 수요자의 인식과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렇다면 선화가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

특기할 만한 것은 선화의 독특한 구도 감각이다. 부채는 어차피 장방형(長方形)이나 종방형(從方形)이 아닌, 부채 모양 화면에 따른 색다른 구도의 그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구도 감각은 그만큼 매우 변화 있고 이채로울 수밖에 없다. 작가들은 부채만의 화면 형태를 통해 독특한 선화의 구도 방식을 완성시켰으며 이러한 기발한 구도 감각은 우리의 선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圓形) 구도도 아니고 방형(方形) 구도도 아닌 부채형 구도의 진면목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어 놀라울 뿐이다. 또한 부채는 들고 다니기 편한 이점 때문에, 아무 데서라도 간편하게 펴놓고 그리기 쉬운 만큼 지금의 스케치북 구실로서도 손색이 없어 더욱 애용되고 성행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선화는 점점 유행하여 19세기 중반 경에는 거의 모든 작가들이 선화를 남기고 있어서 그야말로 한국 선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선화는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먼저 18세기에는 산수화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주로 화면이 그림으로만 꽉 채워졌고 글씨의 양은 많지 않았다. 서체의 양식도 해서(楷書)와 행서(行書)가 주로 유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선화의 소재는 산수(山水)에서 사군자(四君子)나 수석(壽石) 등 단순하고 간소한 소재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체의 양식도 추사체의 영향으로 전서체와 예서체로 바뀌어 갔다. 또한 선화의 작가층의 범위도 확대되어서 선화의 변화가 조선 후기 회화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선화의 변화는 선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작가의 자세 변화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전까지 선화에 대해서 작가들이나 수요자가 지니고 있었던 진지한 인식이나 마음가짐이 사라지고, 선화를 여기(餘技)*와 여묵(餘墨)**을 이용한 소예술(小藝術)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회화에서 당당했던 선화의 비중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 여기(餘技) :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취미로 하는 재주나 일.

** 여묵(餘墨) : 글을 다 쓰거나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남는 먹물.

24. 위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선화란 무엇을 그린 그림인가?
② 선화가 유입된 시기는 언제인가?
③ 선화의 소재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④ 선화의 서체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⑤ 선화의 예술적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25.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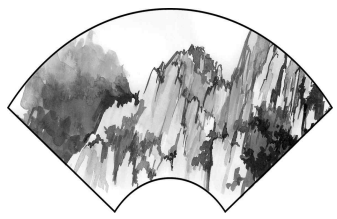
① 대상이 지닌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② 대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그 의의를 규명하고 있다.
③ 대상이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계승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⑤ 대상의 속성이 갖는 공통점을 뽑아 그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26.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선화를 분석해 보면 제작 연대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② 선화를 통해 풍류를 즐겼던 조상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
③ 선화를 대하는 작가와 수요자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게 되었어.
④ 실용품으로만 여겼던 부채를 예술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⑤ 부채의 재질이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27. ㉠에 해당하는 선화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28~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新醅濁酒如湩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耩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飜日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擧趾齊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臾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何苦去作風塵客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나) ⓐ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開闢)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낯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海溢)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 서정주, 꽃밭의 독백 -

(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실
따라서 가면
가슴 속 ⓓ아우성은 절로 갈앉고

처음 보는 수풀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남향 햇볕 속에
수를 놓고 앉으면

세사 번뇌(世事煩惱)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 내올 듯

머언
극락 정토(極樂淨土)가는 길도
보일 성 싶다.

- 허영자, 자수(刺繡)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가)와 (나)에는 삶에서 느끼는 고독감이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다)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나타나 있다.
③ (가)와 (다)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한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④ (가)~(다)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⑤ (가)~(다)에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달관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2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역동적 묘사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② 감정이입의 기법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④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과장된 표현을 통해 농민의 활달한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30. (가)와 〈보기〉를 비교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 내 몸은 떠가나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가라. /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 -

① (가)는 농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기〉는 농촌의 현실을 잊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에는 현실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이 대비되어 있으며, 〈보기〉에는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대비되어 있다.
③ (가)에는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갈등이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자연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④ (가)에는 부정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는 부정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비애감이 드러나 있다.
⑤ (가)에는 노동의 모습을 통한 자아 성찰의 태도가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상실한 세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31. 〈보기〉는 (나)를 읽은 독자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일부이다.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쓰신 시를 좋아하는 독자입니다.

선생님의 시는 생각할 것이 많은 시였습니다. 시 내용 가운데 ㉠꽃이 아침마다 개벽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화자는 꽃을 지향하는데요, 꽃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는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유한한 인간세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낯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라는 표현은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뭘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아마 여기서 ㉣'문'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 유한한 인간 세계의 중간에 위치한 사물이겠죠. 그래서 ㉤'문 열어라 꽃아'라는 구절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열망을 표현한 구절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편지에 대한 선생님의 답장을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2.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33. 〈보기〉에서 (나)의 길과 시적 기능이 유사한 것은? [1점]

〈보 기〉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 향단아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데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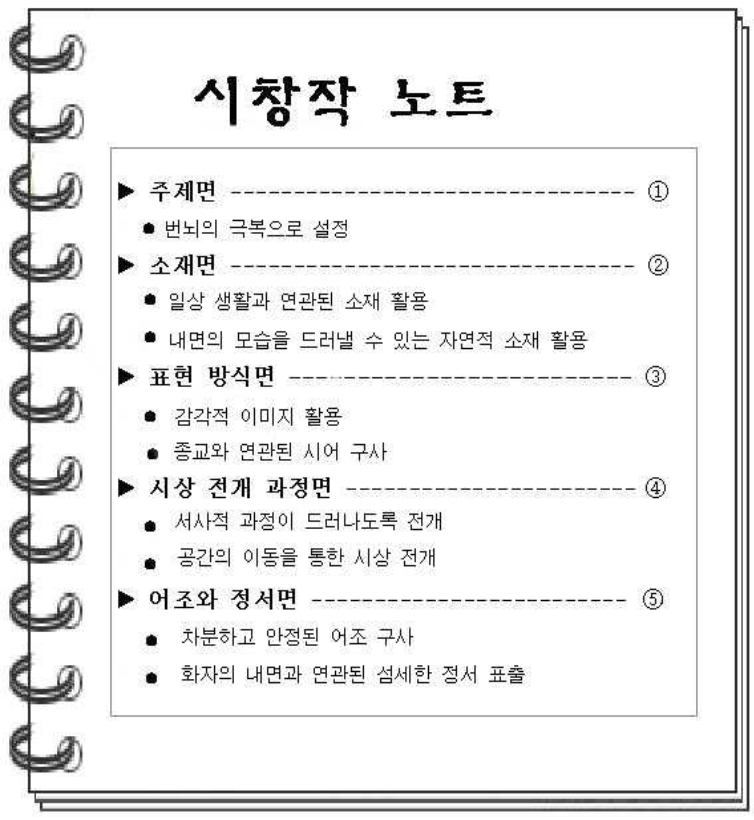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① 머언 바다 ② 배 ③ 수양버들나무
④ 하늘 ⑤ 서(西)

34. 다음은 (다)를 창작하기 위해 메모한 내용이다. (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philosophy)이라는 말의 어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서양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철학을 애지학(愛智學: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옮기기도 한다. 이 말을 처음 쓴 소크라테스는 당시 스스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만하며, 지식의 소매상 노릇을 하던 소피스트〔지자(知者)〕들을 통렬히 비난했다. 이들과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지식을 이미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동경하며 갈망하는, 다시 말하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필로소포스〔철학자〕라고 했다.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가능하다. 사랑이란 무소유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여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은 지혜의 무소유 상태로부터 지혜의 소유 상태로의 과정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그런 뜻에서 철학은 언제나 진행형이며 결코 완결될 수 없는 학문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知的) 교만은 이런 의미에서 '철학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자의 일차적 자격 요건이 바로 지적인 겸손이다. 지적으로 겸손한 자만이 철학이라는 고귀한 활동에 동참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자기가 진정 아는 것이 없다는 자각을 '무지(無知)의 지(知)'라고 한다. 이러한 자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단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크고 작은 우상(偶像)들을 남김없이 파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우상의 파괴론을 철학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다. 그는 신의 존재 등 몇 가지 가정(假定)을 자명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 전제로부터 연역 논증을 통해 각종 진리들을 도출하는 중세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반기를 들었

다. 즉 진정한 지식은 모든 독단과 편견을 버린 후 ㉠경험에 바탕을 둔 귀납적 논증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진정한 지식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인간의 편견인 우상을 '종족(種族)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市場)의 우상', '극장(劇場)의 우상'이라고 부르고, 이 네 가지 우상을 파괴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종족의 우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며, 무엇이든 의인화해서 생각함으로써 하느님마저도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소는 소의 형상을 한 하느님만을 생각할 것이며, 말은 말의 형상을 한 하느님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

동굴의 우상은 개인마다 각자 자기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상이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세상 모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며 서로 옳다고 우기게 된다. 각자 자신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만의 동굴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허한 태도로 타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우상은 말로 인해 생겨나는 갖가지 우상을 말한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을 상징한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없는 사실인데도 말만 생겨나 떠돌게 됨으로써 편견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극장의 우상은 권위로 인해 생겨나는 우상을 말한다. 극장 무대에서 배우들이 분장을 그럴 듯하게 하고 조명을 휘황하게 비추면 우리는 그것이 현실인 양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어떤 주장이건 그것에 권위의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쉽게 믿어버리는 버릇이 있고, 그 때문에 편견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갖가지 편견과 우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철학적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독자적인 사고와 홀로서기를 향한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3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철학은 연역 논증을 통해 진리를 도출한다.
②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철학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지적 겸손 여부이다.
④ 우상의 파괴는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하기 위한 것이다.
⑤ 철학은 지혜를 소유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36. 베이컨이 말한 네 가지 우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이 만물의 척도(尺度)라고 믿는 경우
②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여 우산을 가지고 나갔으나, 비가 오지 않은 경우
③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 괴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경우
④ 일반인이 그린 그림을 유명 화가가 그렸다고 하니, 곧바로 높은 가격에 팔린 경우
⑤ 물이 든 투명 유리컵에 꽂혀 있는 곧은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므로 젓가락이 굽은 것이라고 믿는 경우

37. ㉠의 추론 방식이 적용된 것은?

① 꿈은 현실을 거꾸로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제 내가 친구와 다투었던 꿈은 그 친구와 더 친해진다는 꿈일 것이다.
② 나는 성적이 떨어지면 우울해 하고, 성적이 오르면 싱글벙글한다. 이로 보아, 나의 기분은 성적에 좌우되는 것임이 틀림없다.
③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모두 운동을 싫어한다. 내가 알고 있는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므로 철수는 운동을 싫어할 것이다.
④ 안개가 자욱히 끼면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비행기가 떴다. 그러므로 오늘은 안개가 자욱히 끼지 않았을 것이다.
⑤ 순발력과 주력이 뛰어난 사람은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된다고 한다. 내 동생인 상수도 순발력과 주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상수도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될 것이다.

38. 〈보기〉에서 진정한 지식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보 기〉

베이컨은 자신은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사실들만 끌어모으는 경험주의자들도 아니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것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끌어내어 이론을 세우는 합리주의자도 아닌, 제3의 방식인 '꿀벌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벌들은 꽃으로부터 ⓒ재료를 모으나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소화시킨다고 한다. 그처럼 자신의 학문적 작업은 단순한 경험 자료의 수집에 의한 일반화가 아니고, 천성적 ⓔ원리에 의해 나오는 것도 아닌, 경험 자료를 모아서 소화시켜 새로운 학문의 기틀을 삼는 방식이라고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9. ㉡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① 그는 책을 가지러 서재에 갔다.
② 그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③ 그는 매사에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④ 두 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⑤ 우리 고장에는 해마다 10월이면 민속 행사를 가진다.

[40~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는 생성, 변천, 소멸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간다. 또한 각 언어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면서 변천하여 간다. 그런데 어떤 언어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잘 변동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쉽게 변하는 것도 있다. 한 나라의 여러 지역 방언들도 이와 같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어떤 지역의 방언은 빨리 변천하여 옛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어떤 지역 방언은 그 변천의 속도가 느려서 아직도 옛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방언의 변천은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인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는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전파가 빨리 이루어진다. 문화적으로는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발달하지 못한 곳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대개의 표준말이 수도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도시의 언어가 시골의 언어에 침투됨이 쉽다는 말과 같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서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전파된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한 방언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언의 특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언의 유지성이다. 각 지역의 방언은 그 유지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영향을 끼쳐서 하나의 방언일지라도 사실은 여러 방언의 요소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각 방언을 엄밀히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방언은 한편으로는 통일되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즉 국가, 민족, 문화가 동일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방언의 공통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표준어의 제정이다.

(나) 신체 언어는 몸으로 의미를 표현하여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사람들은 음성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체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신체 언어는 음성 언어와 어휘 면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음성 언어가 민족에 따라 다르고, 같은 민족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방언이 있고, 같은 지역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개인 방언이 있듯이 신체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또한 음성 언어에 동음어와 동의어가 있듯이 신체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음성 언어에서 어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며 새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체 언어도 이런 점에서 음성 언어와 비슷하다.

인사하는 행위는 악수, 절, 껴안기, 볼에 입맞추기 등 민족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서구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악수가 인사의 한 형식으로 일반화하였다. 악수는 지위, 신분,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 잠시 동안이지만 동등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데, 이는 다른 인사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 나타난 인사법이라고 본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인사법은 지위, 나이, 신분 등이 아래인 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낮춰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과는 비교가 된다.

신체 언어는 표현할 수 있는 몸의 부위와 방법이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라서, 신체의 부위나 행동이 표현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라마다 비슷한 표현 동작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신체 언어 어휘가 많다. 한편으로는 우연이지만 나라가 다른데도 같은 의미의 어휘가 같은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신체적 표현의 제한성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지만 민족마다 신체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신체 언어가 다르기도 하다. 엄지와 검지의 끝을 대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좋다, 잘 되었다'와 같은 긍정의 의미이다. 그런데 프랑스 남부에서는 '없다, 무가치'를 뜻하고,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지방에서는 '항문'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돈'을 의미해 왔는데, '잘 되었다, 좋다'라는 외래 의미가 들어와 쓰이면서 한 동작이 두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반면 음성 언어에서의 동의어처럼 한 의미가 여러 형태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신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체계의 변화, 외국 문화의 유입, 새로운 표현의 필요성 때문에 어떤 어휘는 없어지거나 변화하거나 또는 새로 나타난다. 새로 나타나는 신체 언어는 외래적이다. 즉 신체 언어는 외래적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쓰는 악수, 윙크, 어깨를 으쓱하면서 어이없다는 표정 짓기 등은 편리성과 필요성 때문에 널리 ⓑ쓰인다.

40.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언어의 생성과 변천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② 방언의 전파는 문화나 정치적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③ 인사는 지위나 신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④ 신체적 표현의 제한성이 표현의 보편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⑤ 새로 나타나는 신체 언어의 경우는 대체로 외래적 요소가 강하다.

41. (가), (나)와 관련된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은 선천적이다.
② 언어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③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외래적 요소의 유입이 언어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⑤ 언어에서 의미와 소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42. ⓐ,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	ⓑ
① 병용(倂用)되고	사용(使用)된다.
② 적용(適用)되고	겸용(兼用)된다.
③ 범용(汎用)되고	이용(利用)된다.
④ 통용(通用)되고	소용(所用)된다.
⑤ 활용(活用)되고	응용(應用)된다.

43. (가)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① 방언의 변화 양상은 언어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다.
② 방언에는 다른 지역 방언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③ 방언의 통일성이 표준어 제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④ 방언이 유지되려는 힘이 클수록 방언의 통일성은 강화될 것이다.
⑤ 정치적·문화적·지리적 조건은 방언의 유지성과 통합성에 영향을 끼친다.

44. (나)를 심화 학습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 언어의 표현이 제한적인 이유를 알아본다.
② 소멸된 신체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조사해 본다.
③ 민족마다 신체 언어의 표현 양식이 다른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다.
④ 한 의미가 여러 형태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신체 언어의 사례를 찾아본다.
⑤ 한 동작이 두 의미를 갖게 되는 신체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알아본다.

[45~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내가 나이 열여덟 살에 우울증에 걸려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민 영감을 소개하였다. 나는 기뻐하며 그와 함께 놀러 오라고 하였다.

민 영감이 나를 찾아 왔는데, 나는 마침 벗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민 영감은 서로 인사도 나누기 전에 퉁소 부는 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의 뺨을 치며 크게 꾸짖었다.

"주인은 즐겁게 놀자는데, 너는 어째서 성난 꼴로 있느냐?"

나는 깜짝 놀라서 그에게 까닭을 물었다. 민 영감이 말하였다.

"저 놈의 눈알이 잔뜩 튀어나오도록 사나운 기운을 품었거든요. 저게 골낸 게 아니고 무엇이겠소?"

내가 크게 웃었더니, 민 영감이 또 말하였다.

"꼭 퉁소 부는 놈만 성난 게 아니라오. 피리 부는 놈은 얼굴을 돌리고 우는 듯하고, 장구를 치는 놈은 이마를 찌푸린 채 시름겨운 듯하다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난 듯, 아이와 종놈들까지도 웃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런 음악으로 어찌 기쁠 수 있겠소?"

나는 곧 그들을 돌려보내고 민 영감을 맞아들여 앉혔다.

그는 비록 몸집이 작았지만, 흰 눈썹이 눈을 덮었다. 그가

"내 이름은 유신(有信)이고, 나이는 일흔세 살이라우."

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당신은 무슨 병이 들었수? 머리가 아픈 거유?"

하고 물었다.

내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또 "배가 아픈 거유?" 하고 물었다.

내가 또 "아니오." 대답했더니,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병이 아니라오."

㉡그는 곧 지게문을 열고, 들창을 걷어 괴었다. 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자 내 마음이 차츰 시원해져서,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그래서 민 영감에게 말하였다.

"나는 특히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잔다오. 이게 바로 병이지요."

민 영감이 몸을 일으켜 나에게 치하(致賀)하였다. 내가 놀라면서

"영감님, 무엇을 치하하신단 말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은 집이 가난한데 다행히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소? 게다가 잠까지 없다니, 낮밤을 아울러서 나이를 갑절이나 사는 게 아니겠소?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나이를 갑절로 산다면, 그야말로 수(壽)와 부(富)를 함께 누리는구려."

얼마 뒤에 밥상이 들어왔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이것저것 골라서 냄새만 맡을 뿐이었다. 민 영감이 ㉢갑자기 크게 성내며 일어나 가려고 하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영감님, 왜 노해서 가시렵니까?"

물었다. 민 영감이 말했다.

"당신은 손님을 불렀으니 손님에게 먼저 음식을 권해야지. 어째서 혼자 먹으려고 하오? 이건 나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오."

나는 사과하면서 민 영감을 붙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밥상을 올리게 하였다. 민 영감은 사양하지 않고, 팔뚝을 걷어붙였다. ㉣숟가락과 젓가락에 음식을 가득 올렸다. 나는 저절로 입안에 침이 흘렀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코밑이 트였다. 그제야 옛날처럼 밥이 먹혔다.

밤이 되자, 민 영감은 눈을 감고 단정하게 앉았다. 내가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걸었지만, 그는 더욱 입을 다물었다. 나는 몹시 무료하였다. 한참 뒤에 민 영감이 별안간 일어나서 촛불 똥을 긁어 버리며 말하였다.

"내 나이가 젊을 때엔 눈에 스치는 글마다 곧 외웠지만, 이젠 늙었다오. 그래서 당신과 내기 약속을 해 보리다. 평생 보지 못한 책을 뽑아 내어 각기 두세 번 눈으로 훑어본 뒤에 외워 보려오. 만약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게 어떻겠소?"

나는 그가 늙었음을 기화(奇貨)*로 하여

"그러지요."

대답하고는 곧 시렁 위에서 『주례(周禮)』를 뽑았다. 그 책에서 민 영감은 '고공(考工)편'을 골랐고, 나에게는 '춘관(春官)편'이 돌아왔다. 잠깐 뒤에 민 영감이

"나는 벌써 다 외웠다우."

하고 나를 일깨웠다. 나는 아직 한 차례도 훑어보지 못한지라, 깜짝 놀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청하였다. 영감은 자꾸만 재촉하여,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 나는 그럴수록 외울 수가 없었다. 졸리운 듯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하늘이 밝은 뒤에야 민 영감에게

"어제 외운 글을 기억하시오?"라고 물었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다오."

- 박지원, 민옹전 -

* 기화(奇貨) :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45.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민 영감은 퉁소 부는 자의 표정을 트집 잡아 나무랐다.
② 민 영감과 지내는 동안에 화자는 자신도 모르게 병이 나았다.
③ 민 영감은 화자의 병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④ 민 영감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⑤ 민 영감은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화자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4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④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대화를 통해 조절되고 있다.
⑤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학을 드러내고 있다.

47. ㉠~㉤ 중, '민 영감'이 '나'를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가 아닌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4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민 영감'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속에는 인생의 고통과 극복의 과정이 드러난다. 박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 영감'이라는 인물을 창조하였다. 민 영감은 우울증(憂鬱症)과 거식증(拒食症)이라는 병에 걸린 화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 때 민 영감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다.

_____

① 운명에 순응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② 심사숙고하라. 어려운 문제는 깊이 생각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③ 스스로 노력하라.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
④ 모범 사례를 이용하라. 검증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⑤ 관점을 바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이나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강물**이 생사(生死)가 명멸(明滅)하는 **시간** 속을 흐르면서 낡은 시간의 흔적을 물 위에 남기지 않듯이, 자전거를 저어갈 때 25,000분의 1 지도 위에 머리카락처럼 표기된 지방도·우마차로·소로·임도·등산로 들은 **몸**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몸 밖으로 흘러 나간다. 흘러 오고 흘러 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생사가 명멸하는 현재의 몸이다. 이끄는 몸과 이끌리는 몸이 현재의 몸 속에서 합쳐지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가려는 몸과 가지 못하는 몸이 화해하는 저녁 무렵의 산 속 오르막길 위에서 자전거는 멈춘다. 그 나아감과 멈춤이 오직 한 몸의 일이어서, 자전거는 땅 위의 일엽편주(一葉片舟)처럼 외롭고 새롭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몸은 세상의 길 위로 흘러나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과 길은 순결(純潔)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몸과 길 사이에 엔진이 없는 것은 자전거의 축복(祝福)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몸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몸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지만, 엔진이 갈 수 없는 모든 길을 간다.

구르는 바퀴 안에서, 바퀴를 굴리는 몸은 체인이 매개하는 구동축(驅動軸)을 따라서 길 위로 퍼져 나간다. 몸 앞의 길이 몸 안의 길로 흘러 들어왔다가 몸 뒤의 길로 빠져나갈 때,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은 몸이 곧 길임을 안다.

길은 저무는 산맥의 어둠 속으로 풀려서 사라지고, 기진(氣盡)한 몸을 길 위에 누일 때, 몸은 억압 없고 적의 없는 순결한 몸이다. 그 몸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 앞에서 곤히 잠든다.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그래서 자전거는 내리막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오르막을 오를 때 기어를 낮추면 다리에 걸리는 힘은 잘게 쪼개져서 분산된다. 자전거는 힘을 집중시켜서 힘든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힘을 쪼개가면서 힘든 고개를 넘어간다. 집중된 힘을 폭발시켜 가면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분산된 힘을 겨우겨우 잇대어가면서 고개를 넘는다.

1단 기어는 고개의 가파름을 잘게 부수어 사람의 몸 속으로 밀어넣고,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의 몸이 그 쪼개진 힘들을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길 위로 흘려 보낸다. 1단 기어의 힘은 어린애 팔목처럼 부드럽고 연약해서 바퀴를 굴리는 다리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안쓰럽고, 동력은 풍문처럼 아득히 멀어져서 목마른 바퀴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데, 가장 완강한 가파름을 가장 연약한 힘으로 쓰다듬어가며 자전거는 굽이굽이 산맥 속을 돌아서 마루턱에 닿는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를 때, 길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기어의 톱니까지도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내 몸이 나의 기어인 것이다. 오르막에서, 땀에 젖은 등판과 터질 듯한 심장과 허파는 바퀴와 길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땅에 들러붙어서, 그것들은 함께 가거나, 함께 쓰러진다.

'신비'라는 말은 머뭇거려지지만, ⓔ기진한 삶 속에도 신비는 있다.

오르막길 체인의 끊어질 듯한 마디마디에서, 기어의 톱니에서, 뒷바퀴 구동축 베어링에서, 생의 신비는 반짝이면서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흐르고 구른다. 땅 위의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산맥을 다 넘을 수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려 나아가는 일은 복되다.

- 김훈, 자전거 여행 프롤로그 -

4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일상적 소재에서 삶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②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을 인생 길에 비유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④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⑤ 서정적인 문체를 통해 독자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50. [A]의 단어들을 '흘러감'이라는 속성을 중심으로 짝지어 보았다. 단어 간의 관계성이 가장 미약한 것은?

① 길 - 몸
② 몸 - 강물
③ 몸 - 시간
④ 길 - 자전거
⑤ 강물 - 시간

51. 위 글의 작가가 〈보기〉의 시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보 기〉

내리막길에서는 가속이 붙는다.
페달은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마음은 놓을 수 없다.
균형은 잡아야 하고, 뜻하지 않은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바퀴살에 반짝이는 석양
이따금 찌렁찌렁 울리는 방울.

언덕길 막바지에서 해가 지고
결국은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지금 편안히, 제법 상쾌한 기분으로,

관성에 몸을 실어
가을 석양의 언덕길을 굴러 내려간다.

아슬아슬한 균형도 잡으면서
한가로이 이따금 방울도 울리면서.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② 다가올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도록 하자.
③ '석양'과 '방울'의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자.
④ 삶의 과정에서 겪을 수도 있는 힘든 경우를 대비하는 자세가 나타나도록 하자.
⑤ '가을'과 인생의 '내리막 길'을 결부시킬 수 있도록 시의 화자를 황혼기의 인물로 설정하자.

52. ⓐ~ⓔ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은?

① ⓐ : 자전거 타기는 몸과 길이 자전거를 매개로 만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② ⓑ : 인생은 고갯길과 같아서 어려움과 쉬움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③ ⓒ : 힘들이지 않고 험한 고개를 넘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④ ⓓ : 목표를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자전거를 전진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⑤ ⓔ :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그 삶 속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한다.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3세기경 이탈리아 시칠리섬의 시라쿠사에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살았는데, 그는 임금인 '히에론'에게 수학을 가르치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임금님이 그에게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다 쓰는가?"라고 물었는데, 이에 그는 지렛대와 도르래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것 등이 모두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 자신은 수학의 쓰임보다 수학을 통해 자연에 숨어 있는 섭리(攝理)를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었다.

수학은 물건을 헤아리거나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수(數)·양(量)에 관한 학문으로, 철학·천문학·약학 등과 함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옛날부터 발달해 내려왔고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 발전 양상은 눈부시다.

수학은 인간의 사유(思惟)에 의하여 구성된 추상적인 과학으로, 추론(推論)의 전제(前提)로 삼는 공리(公理)*라 일컫는 일군의 명제(命題)를 가정하여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채택하는 공리를 달리 선택하면 결론도 달라진다. 수학은 그 본질적인 추상성(抽象性) 때문에 전제로 삼은 공리에 보다 적합한 구체적인 현상을 적용시키면, 이 공리에서 이끌어 낸 결론이 그 구체적인 현상을 선명하게 해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을 '과학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며, 자연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는 물론, 사회·인문·군사 등 모든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A] 더욱이 수학은 이러한 실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숫자를 일정한 순서대로 결합하다 보면 수학이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보고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수학은 경제 분야를 비롯한 일상 생활 전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미분방정식과 같은 수학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973년 블랙과 숄츠 같은 수학자들은 미분방정식 이론이 금융 시장에도 잘 적용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미분방정식을 통해 금융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로 뉴욕의 금융 시장에서는 수천 명의 수학자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국민 연금이나, 퇴직금, 의료보험금 등 경제 활동에서 파생되는 경영 문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 기법도 수학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학자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수학을 이공계로 갈 사람들만 공부하면 되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수학은 단순히 과학을 배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는 바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언어이며 인간의 마음을 종합적으로 훈련시키는 학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학이 비록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쓰임에만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돈은 쓰임이 많아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이

실용과 이론도 둘이 아니다.

* 공리(公理) :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증명이 없이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

53.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조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④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대상을 통시적으로 서술한 후 학문적 성격을 정리하고 있다.

54. 위 글에 대한 심화 학습 활동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수학자들이 최근 기업에 대한 평가 기법을 개발한 자료를 조사해 본다.
②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을 통해 발견한 자연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③ 블랙과 숄츠의 미분방정식 이론이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킨 원인을 조사해 본다.
④ 수학이 경제 분야를 비롯한 일상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⑤ 수학자들이 만든 금융 상품이 전 세계에 유통된 계기를 분석한 자료를 조사해 본다.

55. ㉠의 예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확률에 대해 학습한다.
② 비논리적인 사고를 교정하기 위해 수학을 공부한다.
③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학 이론을 배운다.
④ 바이러스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라는 책을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

56. [A]를 고려했을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예시1)	(예시2)
0×9+1=1	9×9+7=88
1×9+2=11	98×9+6=888
12×9+3=111	987×9+5=8888
123×9+4=1111	9876×9+4=88888
1234×9+5=11111	98765×9+3=888888
12345×9+6=111111	987654×9+2=8888888
123456×9+7=1111111	9876543×9+1=88888888
1234567×9+8=11111111	98765432×9+0=888888888
12345678×9+9=111111111	
123456789×9+10=1111111111	

① 수학은 추상성을 지닌 과학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문이군요.
② 수학은 자연에 숨어 있는 섭리를 규칙적인 숫자로 배열함으로써 진리에 접근하는 학문이군요.
③ 수학은 과학을 배우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과학을 더욱 진보시키는 뛰어난 학문이군요.
④ 우리가 마음을 종합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⑤ 수학은 실용적일 뿐 아니라 숫자를 규칙적으로 조합하니, 수(數) 자체가 지닌 신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군요.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병은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因子)들에 대한 인체의 정해진 반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인체의 구조나 기능이 교란될 때 생긴다. 따라서 질병 유발 인자들에 대한 인체의 정해진 반응이 이들을 잘 처리하여 인체 기능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면 질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질병 유발 인자의 하나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해도 면역계가 이를 잘 처리하여 인체 기능이 교란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고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로는 1)외상이나 방사선, 고열이나 한냉 같은 물리적 인자, 2)외부로부터의 수많은 종류의 화학 물질이나 세포 내부의 대사물, 3)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같은 생물학적 인자, 4)영양분의 결핍이나 과다, 5)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6)스트레스, 7)비정상적인 유전자 등이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들에 노출된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사람의 세포는 여러 수준의 안전 장치들을 발전시켜 질병 유발 인자들에 반응함으로써 생존하여 왔다. 질병 유발 인자들이 이러한 안전 장치를 뚫고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교란시키면, 염증성 질환이나 변성 질환, 종양 등으로 크게 구별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질병 유발 인자들에 대한 인체의 반응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체의 모양, 작동 방식과 범위 등 모든 생명 현상은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전자는 DNA 위에 네 종류의 염기 서열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백질 하나를 만들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염기 서열의 모음을 유전자라 한다.

DNA 상의 유전자들은 외부로부터 특정한 자극이 오면 예정된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자신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아미노산 순서를 지정하여 특정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단백질을 일정한 양만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각자 자신에 부여된 일을 순서대로 수행함으로써 외부 자극을 처리하게 되며, 이 단백질군이 일한 결과가 우리가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표현형〔유전학상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본 형질〕이다. 사람은 약 30억 알파벳〔염기〕 길이의 DNA 위에 약 10만 개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데, 이 유전자 중에는 수정 후 태아의 각 기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발생 유전자, 각 세포가 일정한 기능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분화 유전자, 세포 내에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대사 유전자,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 노화나 세포의 죽음에 관여하는 유전자 등 수많은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 정해진 순서대로 이들이 협력하여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처리한다.

㉠어버이의 게놈이 한 벌 복사되어 자손의 수정란에 넘겨지면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들을 순서대로 만들어 일을 시킴으로써 태아가 형성된다.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며, 수명이 다해 죽음에 이르는데, 만약 이 정보에 이상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질병 유발 인자들에 대한 반응의 방식과 범위도 이와 관련된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유전자들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받으면 인체의 정상 기능이 교란되어 병을 일으키거나 특정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된다. 따라서 어떤 유전자에 어느 형태의 결함이 일어나 특정한 질병이나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유발되는지를 찾아내는 일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 질병 유전자의 이상이 어떤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정상 반응을 교란시켜 몸과 마음을 피폐시키는가를 밝히면 이를 차단할 약과 예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57.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점〕

① 유전자의 종류
② 유전자의 개념
③ 유전자의 발생과 소멸
④ 질병 유발 인자의 종류
⑤ 유전자가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

58. ㉠을 통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태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게놈에 있는 여러 유전자가 정해진 순서대로 협력해야 해.
② 수정 후 발달 중에 있는 태아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주면 태아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겠군.
③ 아버지가 꽃가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이라면 자손도 같은 체질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군.
④ 어버이의 유전자가 복사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으면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수도 있겠어.
⑤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유전자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기 어렵겠어.

59. '유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전의 원리

- ○ 유전자 연구에 대한 지원 대책 · · · · · · · · · · · · · · · ㉠
- ○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배열 · · · · · · · · · · · · · · ㉡
- ○ 유전병에 대한 연구, 어디까지 왔나 · · · · · · · · · · · · ㉢
- ○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는 이유 · · · · · · · · · · · ㉣
- ○ 유전자가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과정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60. 〈보기〉에 대해 위 글의 글쓴이가 제시할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질병 감수성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발병 가능성이 있는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고용이나 보험, 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 태아 유전자 검사법의 발달로 질병 감수성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들은 임신 중절의 유혹에 이끌릴 수도 있다. 조만간 지능이나 행동 유형에 관계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결함 유전자나 뛰어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유전적 하위 계층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태아 시기에 우성 유전자를 도입하려는 유혹도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① 유전 정보 제공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전 정보의 취득, 열람, 배포와 관련된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② 유전자 제일주의로 인해 결함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인권 침해의 위험이 없는 한도에서 유전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③ 유전자에 대한 연구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확충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④ 유전적 결함에 의해 생긴 문제는, 결함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예방법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⑤ 유전 공학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질병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따름입니다. 유전 공학을 활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는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